5·18 전국화 교재 24년만에 광주로

1991년 전교조 교사들이 제작해 전국 초중고에 배포

공동수업 교재 대부분 유실…대구 퇴직교사가 보내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사진 및 증언록 등이 담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공동수업 교재가 24년 만에 광주의 품에 안긴다.

이 교재는 지난 1991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제작한 것으로, 전국에서 이 교재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교재는 5·18이 '폭동' '사태'라고 왜곡·폄훼받던 민주화운동 탄압 시기에 만들어져 5·18의 전국화는 물론 진실을 알린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9일 정희곤(63) 광주시교육정책자문관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일 대구에서 교직생활을 한 뒤 퇴직한 이석우씨로부터 100쪽짜리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제목의 전교조 공동수업 교재 한 권을 전달받았다.

이 교재는 지난 1991년 정희곤·유양식·이상헌·정진규·김태문씨 등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교사들이 제작한 것으로, 당시 1만5000권이 인쇄돼 전국 초·중·고교 1만여 곳에 배포됐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현재까지 세상 밖으로 나온 교재는 이것이 유일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교재가 유실 또는 분실됐기 때문이다.

이 교재엔 '우리는 왜 5·18 공동수업을 하는가'를 시작으로 '항쟁 주체는 누구인가', '광주학살 주역의 현주소', '희생자 현황', '5·18 관련 오기(誤記)의 석명(釋明)'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정부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5·18에 대한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는 등 5·18 전국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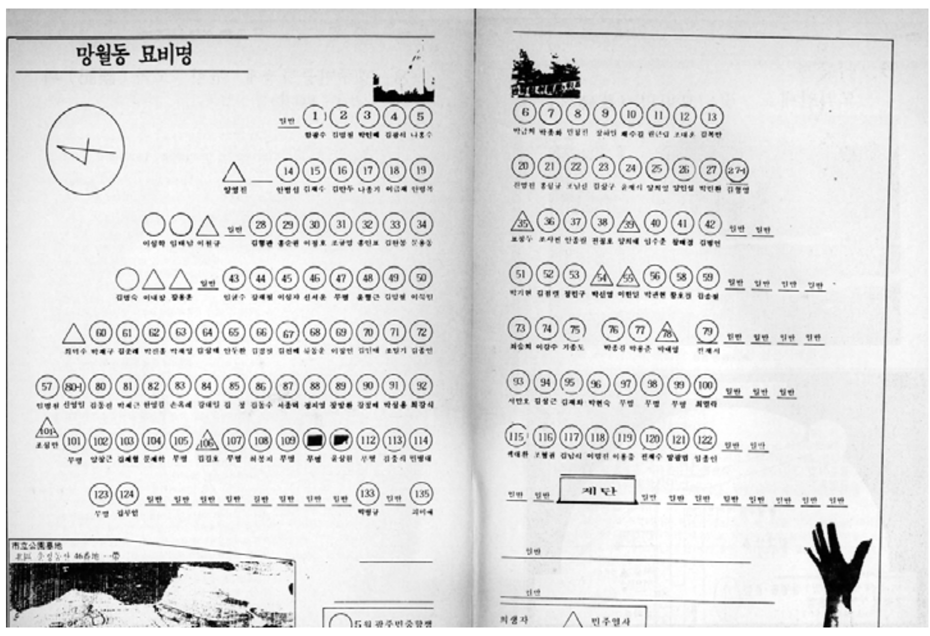
특히 옛 망월묘역(사적지 제24호)엔 5·18 희생자들 뿐만 아니라 민주열사·일반인 시신도 안장돼 있어 어느 묘가 5·18 희생자의 묘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었는데, 일반인 묘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망월묘지도를 만들어 수록했다.

묘지도를 보면 5·18 희생자는 이름과 묘지번호가 담긴 동그라미(○) 표시를, 일반인과 민주열사 묘는 밑줄(_)·세모(△) 표시가 각각 돼 있다.

5·18 희생자들은 지난 1997년 국립 5·18 민주묘지가 설립되면서 이장됐고 당시 흔적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상태다. 하지만 이 망월묘지도가 발견됨으로써 정확한 안장위치와 안장자 수 등을 알 수 있게 됐다.

정희곤 자문관은 "10년 전부터 이 교재를 찾았는데, 수소문 끝에 최근 이를 보관 중인 교사와 연락이 닿았다"며 "이달 안에 5·18 기록관과 협의, 공식 기증식을 한 뒤 관련 자료를 기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의 진실을 담은 전교조 공동수업 교재에 수록된 망월묘지도.

〈정희곤 광주시교육정책자문관 제공〉

5·18 세계화 서적 5개 언어로 번역

기념재단, 벵골·바하사·태국어 등 현지서 번역·출간

내년 3월부터 아시아 10개국서 국제사진전도 개최

5·18 민주화운동사를 기록한 서적이 벵골어 등 5개 언어로 새롭게 번역돼 현지에서 출간된다. 또, 위대한 유산이라는 전시 프로젝트 명 아래 80년 광주의 참상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들이 민주화 열망이 높은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에서 일제히 전시되는 등 5·18 세계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5·18 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이 담긴 서적이 올 연말까지 벵골어 등 5개 언어로 현지에서 번역·출간된다고 9일 밝혔다. 번역되는 서적은 광주시와 5·18 기념문화센터 사료편찬위원회가 발행한 '5·18민주화운동'으로 80년 5월 항쟁 기록이 담겼다.

이번에 번역·출간되는 언어는 바하사어(인도네시아), 벵골어(방글라데시 등), 우르두어(파키스탄 등), 태국어, 싱할리어(스리랑카) 등 5개 언어다.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6억명 가량이다. 이로써 5·18 민주화운동사가 번역된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에 이어 총 9개 언어로 늘게 됐다.

기념재단은 현지 인권 운동단체와 손잡고 이달 안으로 총 1만2000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기념재단 측이 새롭게 5개 언어로 5·18 민주화운동사를 번역·출간한 이유는 지난 5월 광주 아시아포럼, 5·18 아카데미에 참석한 아시아권 인권 활동가들의 요청이 계기가 됐다.

5·18을 알리는 국제 사진전도 내년에 처음으로 열린다. '위대한 유산'이라는 이름의 5·18 국제 사진전은 내년 3월부터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홍콩, 필리핀, 인도, 미얀마 등 아시아 10개국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5·18 세계화 사업이 텍스트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번 국제 사진전으로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 5·18이 입체적으로 현지인에게 스며들 수 있게 됐다.

기념재단 측은 80년 5월 당시 탄압받고 저항하는 광주 시민의 모습과 계엄군의 만행을 낱낱이 기록한 사진 100장을 엄선해 10세트를 제작한다. 사진전 전시 기획은 조대연 광주대 사진학과 교수가, 사진 선정과 에세이 작성은 홍성담 작가가 각각 맡았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사 번역·출간 사업과 5·18 국제 사진전을 통해 5·18의 역사와 숭고한 정신이 세계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아시아인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9일 오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은신처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 출입구를 지키던 조계사 직원 등이 해산을 시도하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계종 요청에…경찰, 한상균 체포 연기

자승 스님 "오늘 정오까지 해결"

경찰이 9일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취를 10일 정오까지 해결하겠다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제안에 따라 한 위원장 체포 작전을 연기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조계종 총무원장 기자회견에 따른 경찰 입장' 자료를 내고 "애초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었으나, 자승 총무원장의 회견 내용을 감안해 내일 정오까지 일단 집행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승 스님은 이날 오후 5시 기자회견을 하고 "내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 거취 문제를 해결할 테니 경찰과 민주노총은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조계종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경찰의 연기 결정에 따라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 작전은 실행 직전 중단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조계사 경내에 경찰력을 배치한 데 이어 한 위원장이 은신한 관음전에 진입로를 확보하고 검거 작전 실행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다만 "(자승 스님이) 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의 자진 출석 또는 신병 인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방침대로 엄정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해남군 인사 비리 의혹 수사

군수실·인사부서 등 압수수색

검찰이 해남군에서 불거진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8~9명을 해남군청으로 보내 군수실과 부군수실, 인사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남군의 인사 관련 자료 5년치와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근무평정 조작을 통한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해남군민대책위원회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 해남군이 2011~2015년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조작, 인사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자 등에 대해 주의 처분과 징계를 권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성 앞 음란행위 바바리맨 "아내 출산에 욕구 풀 데 없어…"

쌍나팔

○…주택가를 배회하며 출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음란행위를 벌인 40대 '바바리맨'이 경찰에 덜미.

○…9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동종전과 3범인 A(43)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학원 건물 주변에서 30대 여성 B씨가 빤히 보는데도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뜻밖에도 범행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A씨를 검거했는데, 경찰에서 그는 "아내가 최근 출산을 하면서 욕구를 마땅히 풀 데가 없었다"며 때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써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 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공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의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저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 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